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105.93 (+85.38)		929.14 (+13.8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99 (-0.011)		1479.75 (+3.45)

‘탈팡’ 틈새공략… 네이버, 가성비·콘텐츠 잡고 업계 1위 간다

〈쿠팡 이탈〉

와우 위협하는 네이버

네이버가 단순 검색 포털을 넘어 거대 커머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네이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흔들리는 쿠팡의 빈틈을 파고들며 이커머스 업계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네이버 커머스 매출은 9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급증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네이버의 전통적 캐시카우인 검색 플랫폼 매출(1조62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 3월 선보인 쇼핑 전용 앱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출시 8개월 만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25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네이버커머스 3분기 매출 36%↑
플러스스토어 MAU 525만 돌파

쿠팡, 월 최대요금 1만7790원
네이버 4900원, 가격측면 유리

이 같은 성장 배경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위협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생략 밀착형 혜택이 자리 잡고 있다.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AI로 가공해 구매로 연결하는 한편, 타 플랫폼과의 공격적인 제휴를 통해 ‘가성비’와 ‘콘텐츠’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미디어 분야에선 다양한 플랫폼을 골라보는 ‘콘텐츠 뷔페’ 전략을 택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엑스박스 게임패스, 네이버 웹툰 쿠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를 매달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최대 40% 할인 혜택도 더했다.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월 7000원)나 스포티파이 베이직(월 8690원)을 개별 구독하는 것보다 월 4900원인 네이버 멤버십을 구독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다.

반면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자체 제작 드라마와 예능을 선보이고 스포츠 팬덤을 묶어두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NBA, F1

등 핵심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다만 스포츠 패스 추가 구독 시 월 요금이 1만7790원까지 치솟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네이버에 밀린다는 지적이다.

쇼핑과 배달 혜택에서도 양사의 전략이 갈린다. 네이버는 ‘최대 5% 적립’이라는 강력한 현금성 혜택을 무기로 내세워, 최저가를 중시하는 알뜰 소비자를 공략한다. 배달 역시 ‘요기요’와 제휴해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요기패스X)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맞서 쿠팡은 ‘속도와 편의’에 올인했다. 금액 제한 없는 로켓배송과 30일 이내 무료 반품은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다. 또한 자사 앱인 ‘쿠팡이츠’의 무제한 무료 배달을 와우 멤버십 기본 혜택으로 탑재해, 쇼핑과 배달을 하나의 앱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도록 고객을 묶어뒀다.

전선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까지 확대됐다. 네이버는 직접 물류센터를 짓는 대신 배송 동맹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롯데마트의 온라인몰 ‘제타’와 제휴해 멤버십 회원에게 ‘제타패스(무료배송 및 3시간 내 배송)’를 개방했고, 앞서 9월에는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선보여 새벽배송 시장에 진입했다. CJ대한통운과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고도화해 일요배송과 희망일 배송까지 구현했다.

쿠팡 역시 최근 쿠팡이츠에 홈플러스의 장보기·쇼핑을 입점시키며 퀵커머스 확장에 나섰다.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는 쿠팡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이는 느슨한 연대에 불과하다”며 “자체 물류센터부터 라스트마일(최종 배송)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쿠팡이 변수 대응이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초반빙 양상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오픈마켓 결제 점유율은 쿠팡 37.7%, 네이버 34.0%로 격차는 불과 3.7%포인트에 불과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1480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3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시세가 보이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4020.55)보다 85.38포인트(2.12%) 오른 4105.93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5.27)보다 13.87포인트(1.52%) 오른 929.14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

금감원 ‘소비자 보호 총괄’ 신설
사후조정 아닌 ‘사전예방적’ 추진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TF 설립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보를 새로 두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부 조직 개편에서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 민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



이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를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했다. 감독 총괄 기능도 부여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

스(TF)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

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이 각각 특성에 맞게 업무를 관장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 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

전국 아파트 17.2만 세대 입주
올해보다 28% 감소하는 수치
서울은 48% 적은 1.6만세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건축비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른 ‘공급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23만8372세대)보다 28% 감소하는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총 8만153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11만

2184세대)보다 28% 가량 줄었다.

특히 서울은 2025년보다 48% 적은 1만6412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대부분인 1만4257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평택, 이천, 파주, 의왕 등 위주로 5만361세대,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로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자방 역시 2025년 12만6188세대에서 2026년 9만736세대로 약 28% 줄어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 13만여 세대에 크게 못미친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5155세대 ▲은평구 2451세대 ▲송파구 2088세대 ▲강

서구 1066세대 ▲동대문구 837세대 등의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총 32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규모 사업장들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서초구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3064세대)와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티원(2091세대)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8012세대) ▲이천(6074세대) ▲파주(3822세대) ▲의왕(3813세대) ▲화성(3259세대) 등 기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이어진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로 총 19개 단지,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네이버플러스-쿠팡와우 비교			
N+ 멤버십			coupang
4,900원		가격	7,890원(스포츠패스구독시 1만7790원)
포인트 적립, 가족계정 공유 가능		장점	로켓배송, 배달비 무료·자유로운 반품
롯데시네마, 웹툰 쿠키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XBOX 게임패스		미디어	EPL, NBA, F1, 자체 제작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요기요 무료 배달		배달	쿠팡이츠 무료 배달
34%		오픈마켓 결제 점유율	37.7%

*결제 점유율은 올해 3월 기준(자료/와이즈앱리테일)

자료/각사

메트로 전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기본 복지는 촘촘하게’ /사진 뉴시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단독 상정…‘슈퍼악법 날치기’”

▲국힘 과방위원들 “왜 최민희가 쿠팡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하나”
▲김민석 총리 “자살 예방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

▲이 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관련 지시 없어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필수 전제 아니야”